

독일어의 시제체계와 쓰임에 관하여

박현선(교원대)

1. 들어가는 말

독일어 시제에 관한 많은 연구가 있지만, 지금까지도 흔히 인식되고 있는 독일어의 시제체계는 현재형, 과거형, 현재완료형, 과거완료형, 미래 I식과 미래 II식이라는 6 시제형태 Zeitformen이며, 이 시제형태들은 또한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삼분법적 시간단계 Zeitstufen로 분류되어지고 있다. 그러나 독일어의 시제체계는 6 시제체계인가? 또한 시간단계는 과거, 현재, 미래로 항상 삼분법으로 나누어야만 하는가?

이러한 독일어의 여섯 가지 시제형과 세 가지의 시간단계로의 구분은 라틴어의 시제체계를 모범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독일어의 시제형은 라틴어와는 다른 동사변화형태를 지니고 있으며, 이와 같은 형태적인 변화에서뿐만 아니라 시제사용 Tempusgebrauch에 있어서도 시제형태와 시간단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흔히 있다.

(1) Jetzt bringt er das Buch. / Morgen bringt er das Buch.

(2) Letzte Woche wird er in Berlin angekommen sein.

예 (1)과 같이 하나의 시제형태가 여러 시간단계에 사용되기도 하고, 예 (2)의 미래시제형과 과거 시간규정어의 결합과 같이, 한 시제형태가 전혀 다른 시간단계에 속하는 규정어와 결합되기도 한다. 예문 (2)의 시간단계는 시제형태의 이름에서 보이는 미래가 시간단계가 되지 못한다. 예문 (2)는 미래시제형으로 표현되어있지만, 오히려 그 시간단계는 과거이다.

이처럼 시간단계 또는 시간내용 Zeitinhalt과 시간형태와의 관계가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이유는 무엇보다도 다음의 두 가지 현상 때문이다: 첫째로 시간내용들이 동사의 시제형태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시간부사나 규정어, 전치사, 접속사 등과 같은 다른 언어적 수단에 의해서도 표현된다는 것과 둘째로 문법적

인 동사의 시제형태가 단지 시간내용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내용 즉 양태와 상과 같은 다른 내용까지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3) Er wird die Lösung gefunden haben.

이 문장은 동사의 시제형태가 시간내용을 나타내고 있다고 보아야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시간내용이 아닌 양태를 표현하고 있는 것인가? Helbig/Buscha(1986)는 이 문장을 시제형태가 양태요소를 동반하고 있다고 보았으며, 이 양태요소는 특히 '추측'을 표현하며, 이 추측은 그러나 미래적인 것이 아니라 과거적인 것에 관계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시간형태와 시간단계의 불일치, 그리고 동사의 시제가 시간을 표현하는 기능 이외의 다른 기능을 담당하는 점에 대한 인식으로 말미암아, 독일어 시제는 이미 상에 의해서 많이 연구되기도 했고, 양태와의 연관성 속에서 또한 설명되어지기도 했다. 본 연구에서는 독일어 시제의 문제점을 풀기 위해서 근본적으로 독일어 시제 체계를 라틴어의 범주로부터 분류시키고자 한다. 독자적인 독일어의 시제체계를 구성해야한다는 생각에서 근본적으로 형태적인 분류에서부터 다시 정리해보고, 나아가 새로 분류된 시제체계를 가지고 텍스트 내에서의 시제의 쓰임기능을 다루어봄으로써 독일어 시제로부터 느끼는 어려움과 문제점들을 극복해 보고자 한다.

1. 전통문법으로부터 벗어난 독일어의 시제체계 분석

1.1. 라틴어 범주와는 다른 독일어 동사의 시제 활용

Heidolph/ Flämig/ Motsch(1984)는 그의 문법서 『Die Grundzüge einer deutschen Grammatik』에서 “독일어의 미래형 Futur I은 시제가 아니며, 현재 완료형 Perfekt, 과거완료형 Plusquamperfekt 그리고 미래 2식 Futur II 속에는 하나의 공통적인 의미요소 Bedeutungselement가 있다. 그것은 바로 완성 Vollzug임”을 지적한다 (Heidolph u.a., 1984: 507-520).

미래형 I식이 시제가 아니고, 현재완료형과 과거완료형 그리고 미래형 II식은 공통요소로서 시간적인 것이 아닌 완료 Abgeschlossenheit를 나타낸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동사의 시제형태 가운데 어떤 시제형태가 근본적으로 사태의 시간성을 나타낸다는 것인가?

Engel(1988)은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전통적으로 학교문법은 6시제체계로 규정하고 있으며, 독일어의 6시제체계는 라틴어의 시제체계와 직접적으로 일치하고 있다. 그러나 라틴어는 모든 6시제형태 내에서 정동사의 특정한 형태 변화, 즉 정동사가 각 시제형태에 따라 활용을 하지만, 독일어에 있어서는 단지 두 시제형태, 현재형 Präsens과 과거형 Präteritum에서만 정동사의 활용을 찾을 수 있다. 독일어의 나머지 시제형태들은 두 가지(현재완료형, 과거완료형 그리고 미래 I식) 그리고 세 가지(미래 II식)로 구성된 동사의 복합구조이다 (Engel, 1988: 494). 라틴어와 독일어의 동사의 시제변화를 비교해 보자.

Tempus	Latinisch	Deutsch
Präsens	scribo	schreibe
Perfekt	scripsi	habe geschrieben
Präteritum	scribebam	schreib
Plusquamperfekt	scripseram	hatte geschrieben
Futur I	scribam	werde schreiben
Futur II	scripsero	werde geschrieben haben

<도표 1> 라틴어와 독일어의 정동사 시제 변화형태 비교

이 도표에서 보듯이, 라틴어는 6시제형태 모두에서 정동사 활용을 했지만, 독일어의 경우는 현재형과 과거형만 정동사 활용을 한 단순시제 die einfachen Tempora이며, 나머지 시제는 복합시제 die zusammengesetzten Tempora이다. 복합시제들의 구조는 “조동사 + 과거분사/현재분사”¹⁾로 규명할 수 있다. 복합시

1) ‘조동사+과거분사/현재분사’구조는 특히 S. Latzel에 의해서 잘 규명된다. Latzel은 분사가 지니는 시간의미와 함께 분사가 나타내는 완료성과 미완료성을 통해서 완료시제형과 미래시제형들의 의미요소들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독일어의 과거분사는 많은 연구속에서 슬라브어의 상의 영향을 받은 흔적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이러한 점은 과거분사나 현재

제로서 현재완료형과 과거완료형을 보자.

(4) Ich habe den Brief geschrieben

(5) Ich hatte den Brief geschrieben.

이 두 형태는 조동사 haben/sein의 현재형이나 또는 과거형에 과거분사 Partizip II의 결합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과, 또한 완료 Abgeschlossenheit의 의미와 사태의 후시성 Nachzeitigkeit 관계를 표현한다는 공통점을 갖는다. 그렇다면 이 두 시제형태의 차이점은 과연 무엇인가? 형태론적으로 이 두 시제의 차이점은 조동사의 시제어간 Tempusstamm에 불과하다. 조동사의 시제어간이 현재시제어간 Präsensstamm이면, 이 구조를 현재완료형이라고 부르고(예 4), 반면에 조동사의 시제어간이 과거시제어간 Präteritumsstamm인 경우에는 과거완료형이라고 부른다(예 5). 실제로 현재완료형과 과거완료형의 차이는 현재어간과 과거어간의 시제형 차이이다. 즉 편지쓰기의 완료성을 나타내는 것은 동일하되, 그 두 문장의 의미차이는 habe와 hatte의 시제성이 나타내주는 시제의미의 차이라는 뜻이다. 독일어의 6시제는 정동사의 동사변화에 근거를 두어서 현재어간 시제와 과거어간 시제로 구분할 수 있다. 현재어간의 시제형들은 따라서 현재형, 현재완료형, 미래형이며, 과거어간의 시제형들은 과거형과 과거완료형이다. 이와 같이 두 그룹으로 나뉘어진 독일어 시제형태들은 그 내에서 다시 단순시제형태와 복합시제형태로 나뉘어 정리 될 수 있다:

구성방식	그룹 I 현재어간시제 (Präsensstamm)	그룹 II 과거어간시제 (Präteritumsstamm)
단순시제형	Präsens	Präteritum
복합시제형	Perfekt	Plusquamperfekt
복합시제형	Futur(I, II)	

<도표 2> 동사의 형태변화에 따른 두 시제 그룹의 대립

분사의 조어 방식과 슬라브어의 상을 만드는 방식의 유사점을 통해서도 규명되고 있다. 즉 슬라브어의 완료상과 미완료상은 접두사와 접미사와 같은 접사에 의해서 상을 형성하는데, 독일어의 현재분사와 과거분사도 조어방식도 그와 유사하다 (z.B. weinend, geschrieben).

이러한 형태적인 분석 이외에도 Curme(1922)의 절대시제와 상대시제, Weber(1956)의 과거시제와 비과거시제, Weinrich(1964)의 시제목록들이 전통문법의 틀을 깨면서 새롭게 독일어 시제 체계를 규명하고자 한 연구들이며, 이 연구결과와 공통점은 독일어 시제체계를 과거, 현재, 미래라는 삼분법의 시간 대립체계로 구분한 것이 아니라, 이분법적인 시간대립 속에서 독일어 시제체계를 정리하고자 한 것이다.

이 가운데 바인리히의 연구는 특히 시제의 형태적인 측면이 아니라, 시제의 사용에 근거를 두고 분석된 결과이기 때문에, <도표 2>를 통해 제시된 동사의 형태변화에 따른 시제의 두 대립과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비교할 필요성을 느낀다. 더 나아가서 전통문법과는 완전히 색다른 방식으로 시제를 분석한 그의 연구방식을 살펴보기 위해서 이를 언급해 보고자 한다.

1.2. Weinrich의 시제 목록

바인리히는 시제 연구영역에 있어서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시제는 텍스트 내에서 임의적 분포가 아닌 확정적 자리로 고정되어있으며, 그러한 시제의 배열이 바로 텍스트를 구성한다. 텍스트에 따라 시제의 사용분포는 달라진다. 바인리히에 의하면, 거의 모든 텍스트는 과거완료형이 포함된 과거형태 그룹이나, 현재완료형이 속한 현재형 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 텍스트 내에서의 사용 분포에 따라 바인리히는 이 두 그룹을 각각 시제그룹 I과 시제그룹 II로 구분하고, 각 그룹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전제하였다: 시제그룹 I은 담론 *Besprechung*속에서, 시제그룹 II는 이야기 *Erzählung*속에서 지배적이다. 시제그룹 I의 동사형태는 담론하는 시제 *besprechende Tempora*로, 시제 그룹 II의 동사형태는 서술하는 시제 *erzählende Tempora*로 간주한다. 바인리히에 의하면 용어 담론 *Besprechen*은 화자뿐만 아니라 청자에 관련된 테마가 참여의 화법 속에서 제시되는 것을 의미하며, 용어 이야기 *Erzählen*은 화자나 청자 누구에게도 직접적이지 않은 테마가 비참여적 화법속에서 제시되는 것이다. 따라서 시제그룹 I인 담론시제는 텍스트 내에서 긴장성 *Gespanntheit*의 입장을, 반면에 텍스트 내에서 시제그룹 II인 서술시제는 긴장해소성 *Entspanntheit*을 나타낸다. 그의 시제목록은 다음과 같다:

시제-목록	
시제그룹 I BESPRECHEN	시제그룹 II ERZÄHLEN
Präsens Perfekt Futur	Präteritum Plusquamperfekt

<도표 3> 바인리히의 시제그룹

시제그룹 I인 담론시제는 주로 드라마, 학술발표 및 논문, 유언, 철학, 에세이와 같은 텍스트유형이, 시제그룹 II인 서술시제는 전설, 설화, 동화, 소설, 회고록과 같은 텍스트유형이 발화상황이 된다.

이러한 시제 그룹의 분류를 통해 바인리히는 발화입장 Sprechhaltung, 발화관점 Sprechperspektive, 시제에 의한 의미부각 Reliefgebung, 시제은유 Tempus-Metaphorik까지 그의 저서 『Tempus. Besprochene und erzählte Welt』에서 설명하고 있다. 이 가운데 발화관점에 대해서 좀 더 언급해 보고자 한다.

발화관점은 각 텍스트 그룹 내에서의 텍스트시간과 행위시간과의 관계를 표현한 것이다. 각 시제 형태들은 텍스트 상에서 전과 후를 갖는다. 담론이나 서술 모두 하나의 시간 속에서 진행되어지는데, 그 시간은 바로 텍스트시간이다. 즉, 텍스트 시간 속에서 어떤 시간이 말해지거나, 들려지거나 또는 기술되어진다는 것이다. 이 텍스트 시간은 행위시간과는 구분된다. 행위시간은 의사소통 내용의 시간점 또는 경과시이다. 텍스트 시간과 행위시의 불일치는 보통 텍스트 내에서 시제에 의해서 신호화되어진다. 예컨대, 담론시제 내에서의 현재완료형의 사용은 청자에게 정보가 다시 가져와지고 있음을 알게 한다. 행위시는 텍스트시간보다 후시성을 지님을 나타낸다. 이와는 달리 미래의 사용은 미리 선택된 정도로써 청자가 행위를 미리 보고 있음을 신호화하고 있다.

기호의 의미를 올바르게 풀이하기 위해서, 청자는 이처럼 항상 선정보 Vorinformation를 포착하려고 하거나 또는 후정보 Nachinformation를 예견하고자 한다. 시제-형태소는 바로 이러한 작업을 담당한다. 시제의 형태변화에 의해서 청자는 텍스트시간 내에서 정보를 선택하기도 하고, 지난 것을 수집하기도 한다.

칭자는 그러나 텍스트시간과 행위시간의 관계에서 ‘전’과 ‘후’의 관계를 인지하기 앞서 각 그룹의 영가점 Null-Stelle을 지니게 된다. 담론시제 그룹과 서술시제 그룹은 각각의 영가점을 가지고 있다. 이 영가점은 담론시제 그룹에서는 현재형이, 서술시제그룹에서는 과거형이 담당한다 (Weinrich, 1985: 55-59).

바인리히는 텍스트 구성소로서 시제를 인식했고, 따라서 시제의 텍스트 구성기능에 주안을 두고 시제기능을 기술했다고 그의 시제연구를 간명하게 요약할 수 있다. 특히 바인리히의 시제연구는 그 동안의 전통문법과는 달리, 기능-의사소통적 관점에서 텍스트 내에서의 시제의 사용과 기능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기 때문에 바인리히 이후의 시제 연구가들에게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었고, 그들은 바인리히의 시제목록에 비판과 수정을 가하면서 시제 연구를 발전시키고 있다.

1.3. 과거와 비과거의 대립

1.1.에서는 형태적 구조에 의한 독일어 시제의 이분 대립체계를 제시했고, 1.2.에서는 텍스트에서의 사용분포에 의한 독일어 시제목록의 이분 대립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흥미로운 것은 이 두 분석의 기준은 형태와 쓰임이라는 대립적인 기준임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독일어 시제는 형태론적인 이유에서뿐만 아니라 시제의 사용과 기능의 고려에 있어서도 삼분적 대립구조보다는 이분법적 시제대립이 합당하다. 따라서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단계 내에 각각의 시제형태를 1대 1로 대응시키지 않고, 현재어간그룹과 과거어간그룹으로 양분한다. 그렇다면 이 시간대립은 과거와 현재의 대립으로 볼 수 있는가?

이 중요한 질문의 대답을 풀어가면서 우리는 독일어 시제체계를 재차 규명하고자 한다.

우리에게는 다가오고 있는 일과 지금 겪고 있는 일과 이미 겪은 일들이 있다. 이때 이미 겪은 일은 과거라는 시간성에 제약을 받지만, 지금 겪고 있는 일과 다가오고 있는 일은 이에 반해 아직은 비과거이다. 어떤 일련의 사태를 시간 선상에 놓을 수 있는 시제성은 엄밀히 말해서 과거 사태에만 가능하다. 아직 겪지 않은 일은 아직 그어지지 않은 예상선에 불과하다. 비과거의 현상들

은 과거로 자리바꿈을 함으로써 시제성을 부여받는 것이다. 즉 시간의 대립은 과거와 현재의 대립이 아니라, 바로 과거와 비과거의 대립이다. 따라서 독일어 양분 시제체계는 과거와 비과거의 대립으로서 형태상 과거어간그룹과 현재어간그룹으로 각 시제형태를 나눌 수 있다.

독일어 시제체계를 과거와 비과거의 대립으로 규명한 연구로는 Weber(1956)와 Vennemann(1982)의 연구를 대표적으로 일컬을 수 있다. 특히 Vennemann은 독일어 그룹을 과거성 *Präteritalis*과 비시제 *Atemporalis*로 규명했다. 이는 과거형 *Präteritum* 이 외의 시제형태들은 시제성을 지니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였기 때문에, 그는 독일어 시제체계를 과거성과 비시제의 대립으로 표현했다. 그러나 우리는 용어 비시제 *Atemporalis*의 대립용어를 과거성 *Präteritalis*이 아니라, 대신에 시제성 *Temporalität*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과거성의 대립개념으로는 비과거성이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비시제성에 대한 대립용어로 시제성을 사용하고자 한다.

과거그룹은 이미 시간에 제약된 현상을 표현하기 때문에 과거그룹의 시제들은 언제나 시간적인 제약을 받는다. 이러한 시간적 제약의 특징을 지니는 과거그룹은 이 제약에 의해서 시제성 *Temporalität*을 지닌다. 반면에 비과거그룹은 아직 특정한 시간에 제약되는 시간성을 부여받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적인 제약에 있어서 자유롭다. 특정한 시제에 제약되지 않은 이 자유성 때문에 비과거그룹의 특성은 비시제성 *Atemporalität*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시제성 *Temporalität* 과 비시제성 *Atemporalität* (또는 *Präteritalis*와 *Nichtpräteritalis*)대립에 의한 시제체계는 시제형태와 시간부사나 시간규정어와 같은 어휘적요소들과의 결합을 설명하는데 큰 도움을 준다. 먼저 현재어간을 가진 비시제성 그룹인 현재형 *Präsens*, 현재완료형 *Perfekt*를 가지고 살펴보자.

- (6) Jetzt besuche ich Sie.
- (7) Goethe geht 1765 nach Leipzig.
- (8) Morgen fliege ich nach New York.
- (9) Wir haben gestern ein Auto gekauft.
- (10) Nächstes Jahr hat er die 80 erreicht.

- (11) Jede Generation kritisiert die andere
 (12) Er hat es nicht so gemeint.

현재형은 예문 (6)-(8) 속에서 현재, 과거, 미래를 나타내는 어휘적 시간규정어를 모두 동반했다. 그러나 이 예문들은 틀린 문장이 아니다. 또한 현재완료형 역시 예문 (9)-(10)에서 과거시간부사 뿐만 아니라 미래시간부사와도 함께 표현되었다. 또한 예문 (11)-(12)에서는 현재형이나 현재완료형이 어떠한 시간부사와도 동반되지 않고 있다. 예문 (11)-(12)는 현재사태나 이미 완료된 사태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타당한 내용을 표현하며 시간적 제약을 받는 무시제문이다. 이처럼 독일어에서 현재형과 현재완료형이 특정한 시간규정어에 한정되지 않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이유는 이들 시제가 바로 비시제그룹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특정 시간성에 국한되지 않는다.

그러나 과거형 Präteritum은 시제성을 지니기 때문에 시간규정어의 제약을 받으며, 이때 시간규정어는 반드시 과거 시간규정어, 즉 발화시점보다 앞선 행위를 나타내는 시간규정어에 국한한다.

- (13) Es regnete gestern sehr stark.
 (14) *Es regnete morgen.

예문 (14)와 같은 문장은 따라서 비문이다. 이러한 시간규정어에 대한 제약은 과거완료형에도 마찬가지이다. 과거형과 과거완료형은 모두 과거어간의 시제성그룹이다. 엄밀히 말하면, 독일어의 순수 시제형태는 과거형 Präteritum 뿐이다.²⁾ 현재형 Präsens, 현재완료형, 미래형은 비시제성 그룹 Atemporalis-gruppe이며, 과거완료형 Plusquamperfekt은 과거형 Präteritum으로부터 확장된 파생시제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를 다음과 같이 집약할 수 있다:

2) 과거형 Präteritum의 이러한 특성때문에 Vennemann은 Temporalis와 Atemporalis의 대립을 차라리 Präteritalis와 Atemporalis로 부른다. (T.Vennemann, 1987).

시제그룹	현재어간의 비시제성그룹	과거어간의 시제성그룹
Primäre Tempora	Präsens	Präteritum
Erweiterte Tempora	Perfekt Futur (I, II)	Plusquamperfekt

<도표 4> 시제성과 비시제성의 대립구조로 이루어진 독일어 시제체계

이 <도표 4>는 형태론적 특징에 의해서 제시되었던 <도표 2>를 시제의 다양한 쓰임 Tempusgebrauch을 고려하여 시제성그룹과 비시제성그룹으로 나누어 보충했다. 이제 이와 같이 정리된 독일어의 시제체계를 바탕으로 하여 두 구간을 이루는 시제형 현재형과 과거형을 중심으로 두 시제형태의 텍스트 내에서의 다양한 기능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시제의 쓰임의 기능: 기본시제 현재형과 과거형을 중심으로

형태뿐만 아니라 쓰임을 고려하여 독일어 시제 체계는 이분법적 대립이 적합하다고 여겨졌고, 그 시간대립은 과거와 비과거, 즉 시제성과 비시제성으로 규정되었다. 그러한 규정을 통해서 독일어의 기본시제는 현재형과 과거형임을 밝혔다. 우리는 이제 의사소통-기능주의적 관점에서 기본시제로서 과거형과 현재형을 중심으로 시제의 쓰임의 기능을 다루어 보고자 한다.

현재형은 일반적으로 유효한 진술이나 진행중에 있는 사태, 그리고 또한 과거, 현재, 미래관련적 문장에 모두 사용된다. 이때는 그때마다의 시제부가어에 의해서 그의 시간특성이 분명해진다. 과거형은 그러나 문어에서나 이미 지나간 사태의 발화시의 묘사를 위한 서술시로서 사용된다. 상술하면(Vgl. Götz, 1999: 98-101)

현재형 - 진술시점에 지속되고 있는 사태의 표현

Die Tochter zieht sich modisch an.

- 일반적으로 유효한 사태나 진리문

- Die Erde dreht sich um die Sonne.
- 미래적인 것
 - Morgen fährt er nach Frankfurt
- 과거적인 것의 역사적 현재
 - 1832 stirbt Goethe.
- 명령과 같은 문장화법
 - Du räumst jetzt dein Zimmer auf!
- 추측과 같은 양태적자질
 - Das geht schon in Ordnung.
- 신문에서의 머릿기사
 - Ararat bittet Staatengemeinschaft um Hilfe.

(“Süddeutsche Zeitung”, 30. 9. 1998)

- 과거형 - 발화시점에서 앞선 과거 또는 완료된 행위를 전달하고자할 때 사용
 - Es regnete.
 - 문어에서의 고정적 서술시제, 서사적 과거형 episches Präteritum
 - Eines Morgens kam Ulrich nach Hause und war übel zugerichtet.
 - (Robert Musil, “Der Mann ohne Eigenschaften”)
 - 구어에서는 생생한 기억이나 집중적인 질문의 표현
 - Wie hieß denn nun sein Vater?
 - 조동사 과거형의 지배적 동사활용형
 - Ich hatte kein Geld bei mir.
 - 체험화법속에서
 - Ich fragte meine Frau: “Gibt es wirklich keine Rettung mehr?”
 - Gab es wirklich keine Rettung mehr? (= erlebte Rede)

시제의 쓰임의 기능을 볼 때, 현재형은 현재, 과거, 미래에 이르러 무시제적 문장, 시간적으로 무한정적인 일반 진리의 표현까지 폭넓게 사용되고 있지만, 반면에 과거형은 그 쓰임을 볼 때 시간적으로는 항상 과거에 국한되며, 단지 체험화법에서만 시간적 표현이 아닌 문체의 수단으로 사용된 특징이 있다. 시

제 예문 내에서 현재형과 과거형을 통해 위와 같이 상술된 시제의 쓰임의 기능은 그러나 다음과 같이 일반적으로 기입할 수 있다: 시간적 속성의 표현 (z.B., Es regnete gertern sehr stark.) 양태적 암시(z.B., Sie ist wohl zu Haus.)와 의미적 강조(z.B., Wie war Ihr Name?).

이 기능들은 발화자의 의도나 텍스트유형들에 의해 텍스트 내에서 결정된다. 즉, 발화자의 의도나, 발화문맥 그리고 텍스트유형에 따라 하나의 시제형이 어떤 기능을 강조하여 사용되었는지, 또는 어떤 기능을 간과하는지가 결정된다 (Götze, 1999:7).

위에 요약된 시제의 기능을 하나의 자질 Merkmal로서 정의 해 볼 수 있다. 각각의 기능은 [+시간특성], [+양태], [+강조]로 나타내 볼 수 있다. 그런데 현재형과 과거형에는 결여되어있지만 그 이외의 시제형태가 지니는 중요한 기능은 바로 상 관련적 표현(z.B., Morgen habe ich die Prüfung bestanden.)이다. 따라서 상 Aspekt 역시 하나의 자질로서 간주하려고 한다. 따라서 시제의 기능을 일반적으로 네 가지 자질로 종합해 보자: [+시간특성], [+양태], [+강조], [+상]. 예컨대, “그의 아버지의 성함이 어떻게 되었다라? Wie hieß denn nun sein Vater?” 이 문장은 [-시간특성], [-양태], [-상], [+강조]로 그 자질을 정의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자질로 표현될 수 있는 문장 “Wie hieß denn nun sein Vater?”의 과거 시제형은 전에 들었던 기억이 있음을 시제를 통해서 강조하는 강조기능을 위해 사용되었다고 파악된다.

이처럼 기능을 자질화하여 그 시제형이 어떤 기능으로 사용되었는지를 살펴 볼 때, 특히 비시제성 Atemporalität로서 현재형의 자질 표현은 이채롭다. 예로서, “Die Erde bewegt sich um die Sonne.”는 [-시간특성], [-양태], [-상], [-강조]이다. 그렇다면 이 경우는 어떤 기능인가?

비시제성으로서 현재형은 시간 특성뿐만 아니라 화자의 감정 개입이나, 의미적 강조성 같은 어떠한 표식된 자질도 포함하고 있지 않다. 비시제적 현재형은 단지 문장의 내용만을 아주 객관적으로 전달한다.

현재형은 독일어 시제의 기본시제이다. 현재형은 형태적인 면에서도 기본시제이지만, 텍스트 내에서의 그 사용 빈도수를 파악했을때도 역시 주도 시제이다. 독일어의 6 시제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주도시제인 현재형이 지니는 “시제에 의한 내용의 객관적 전달”이라는 기능을 따라서 위에서 언급한 시제의 네

가지 기능에 보충하고자 한다. 따라서 우리는 위의 네 가지 시제기능에 하나를 더 추가하여 “내용의 중립적 보고”라는 시제의 기능을 제시할 수 있다.

이러한 기능에 의해서 비시제적 현재형은 텍스트 내에서 무엇인가를 보고하거나 또는 알려줄 때 빈번히 사용된다. 실제 몇몇 텍스트들을 예로써 보자.

(15) ELEFANT

Elefant sind die größten, schwersten Landsäugetiere. Sie haben einen langen, sehr beweglichen Rüssel. Die Schneidezähne sind zu Stoßzähnen umgebildet. (...)

Im Lexikon

(16) INTERKULTURELLE TABUFORSCHUNG

Zur Diskussion um Status und Inhalte von deutsch als Fremdsprache vertritt der Vf. den Standpunkt der kulturwissenschaftlichen Einbettung des Fachs und erläutert ihn am Beispiel von Tabu und interkultureller Kommunikation. Tabu wird verstanden als Teil des sozialen Kodex einer Gemeinschaft. Abzugrenzen auf unterschiedlichen Ebenen sind u.a. (...)

In der Rezension

(17) ALLE WEGE NACH HAMBURG

Hamburg ist einer der größten Seehäfen in Europa. Es liegt zwar nicht direkt am Meer, sondern an einem Fluß, an der Elbe. Sie fließt 110 Kilometer weiter nördlich in die Nordsee. Man kann daher Hamburg mit dem Seeschiff erreichen. Aber auch mit dem Flugzeug, dem Auto und mit der Bahn gibt es gute Verbindung nach Hamburg.

Im Reisebuch

위 (15)-(17)의 텍스트들 내에서 주도 시제는 모두 현재형이며, 이 현재형은 시간특성이 아닌 비시제 Atemporalis로 사용되었다. 이 텍스트들 내에서의 시

제의 기능은 단순히 “내용에 관한 보고”이다. 그러나 이러한 현재형의 시제 기능은 위 예문과 같은 실용텍스트 Sachtext에서 뿐만 아니라 역시 문학작품 Belletristik에서도 찾을 수 있다.

- (18) Hier ist “Einfried”, das Sanatorium! Weiß und geradlinig liegt es mit seinem langgestreckten hauptgebäude und seinem Seitenflügel inmitten des weiten Gartens, der mit Grotten, laubengängen und (...).Übrigens ist, neben Doktor Leander, noch ein zweiter Arzt vorhanden, für die leichten Fälle und die Hoffnungslosen. Aber er heißt Müller und ist überhaupt nicht der Rede Wert.

Anfang Januar brachte Großkaufmann Klöterjahn—in firma A.C. Klöterjahn & Comp.—seine Gattin nach “Einfried”; der Portier rührte die Glocke, und (...)

In Tristan von Thomas Mann

예 (18)은 토마스 만의 작품 트리스탄에서 발췌한 것이다. 이 작품의 첫 장은 현재형으로 시작된다: “Hier ist Einfried”. 그리고 이야기가 전개되면서부터 시제는 바뀌어 과거형으로 전환된다: “Anfang Januar brachte Großkaufmann Klöterjahn”.

서두의 현재형은 이 작품 내에서 작품의 전경을 보고하고 있다. 현재형으로 쓰인 부분은 아직 본 이야기의 전개가 아니다. 전경부분과 본 이야기의 전개를 나누어 주는 암시는 여기서 바로 시제가 담당하고 있다. 시제바꿈을 통해서, 즉 과거 시제로 접어들면서 이제 본 이야기가 진행된다.

Ewa Drewnowska-Vargane(1999)는 그의 논문에서 “일련의 사태에 대한 보고는 과거형으로 행해지지만, 소설의 일련의 단락은 현재형에 의해서 구성되어 진다”고 언급하면서, 문학작품 내에서의 현재형의 다른 역할을 제시한다. 이때의 비시제그룹 Atemporalisgruppe로서 현재형의 자질 역시 [-시간특성], [-양태], [-상], [-강조]이며, 기능은 마찬가지로 실용텍스트처럼 “현장보고”이다. 그러나 문학작품에서는 특이한 역할이 수반된다. 작품 내에서 현재형은 사태를 진행하거나 담당하지는 않는다. 단지 사태의 전경과 배경의 제시 또는 소개를

담당한다. 현재형은 주로 작품 내에서 단락의 시작과 끝에 주로 등장한다. 따라서 문학작품 내에서의 이와 같은 현재형의 쓰임을 “시제의 텍스트 구성소로서의 사용”이라고 부른다.

3. 기본시제 과거형과 현재형은 실제로 시제 사용에 있어서도 역시 주도 시제인가?

독일어 시제는 형태론적으로는 단순시제와 확장시제로 나뉘며, 시간대립으로는 과거와 비과거의 대립이다. 확장시제는 단순시제로부터 파생된 시제이기 때문에, 독일어의 기본시제는 단순시제 과거형과 현재형이다. 독일어에서는 시제성을 지니는 단순시제는 과거형뿐이다. 이 과거형과 대립하여 무시제성을 표현하는 단순시제는 현재형이다. 과거 국한적인 과거형 시제와 특정 시간단계에 특별히 귀속되지 않은 현재형 시제는 텍스트 유형에 따라 사용빈도수가 달라진다.

전통학교 문법에서는 과거형이 문어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문어의 주도시제 Leittempus³⁾라고 설명되기도 한다. 이러한 입장에 반하여 Mathilde Hennig (1999)는 현재형과 과거형 이 두 가지 시제형이 실제로 구어 *gesprochene Sprache*와 문어 *geschriebene Sprache*의 각기 주도시제인가,라는 질문을 제기했고,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 Hennig는 구어의 영역에서는 토크쇼와 축구 생중계방송을 선택하였고, 문어의 영역에서는 텍스트 유형 서평 *Rezension*과 편지를 택하여 분석하였다. 이 텍스트 유형에서 사용된 현재형과 과거형의 빈도수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았다:

3) 텍스트 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어 텍스트를 주도해 가는 중심 시제를 여기서는 주도시제 *Leit-Tempus*라고 표현했다.

(I)

동사	haben, sein, 조동사를 합친 모든 동사	
텍스트유형\시제형	현재형 Präsens	과거형 Präteritum
축구 생중계	1095 - 65.33%	246 - 14.68%
토 크 쇼	2304 - 55.85%	765 - 18.55%
편 지	1227 - 64.00%	324 - 16.90%
서 평	1640 - 84.36%	183 - 9.41%

(II)

총 결과	구어 텍스트	문어 텍스트	분석텍스트 총계
현재형	58.59 %	73.50 %	65.35 %
과거형	17.42 %	11.78 %	14.87 %

<도표 5> 주도시제 파악을 위한 텍스트 표본 분석 결과

현재형은 의심의 여지없이 구어텍스트 표본 분석에서 58.59%로 가장 많이 쓰이는 주도시제로 사용되었으며, 문어와 구어의 구분없이 전체 표본 분석에서도 65.4%로 역시 주도시제로 사용되었음을 확인했다. 그러나 과거형은 문어의 주도시제인가?

분석결과에 따르면 문어의 주도시제는 오히려 현재형이다. 문어 텍스트에서 현재형은 73.5%로 오히려 구어 텍스트에서 보다 더 높은 비율을 얻어냈다.

그렇다면 문어의 주도시제는 현재형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여기서 눈 여겨 보아야 할 것은 문어로서 분석된 텍스트의 유형이다. 여기서 문어로서 분석된 텍스트 유형은 바로 서평과 편지이다. 서평은 분명 관습적으로 문어를 사용하는 텍스트 유형이다. 그리고 특히 이 서평에 있어서 현재형은 84.36%라는 높은 비율을 얻어냈다. 그러나 이런 현재형의 높은 사용 비율에도 불구하고 문어의 주도시제는 과거형이라고 일컬었던 이유는 문어 텍스트의 대표 유형을 단지 소설과 같은 문학작품으로만 국한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문어에 대한 보다 세분화된 분류가 필요했다는 이야기이다.

문어의 텍스트유형은 실용텍스트와 문학텍스트로 분류된다. 서평은 실용텍스트에 속한다. 문어의 표본 검사에서 서평과 같은 실용텍스트를 택하지 않고 문학텍스트를 택했다면, 그 경우는 의심의 여지없이 단연 과거형이 주도시제

였을 것이다.

그러나 문어 텍스트 분석에 있어서 문학작품 대신 비문학적 텍스트의 선택은 두 가지의 시사점이 있다: 첫째는, 과거형은 문어의 주도시제라고 말해져서는 안되고, 보다 구체적으로, 과거형은 문학에서의 서술시제로서만 문어의 주도시제로 한정되어야한다. 비문학적인 문어 텍스트에서 과거형은 주도시제가 아니다. 둘째는, 어떤 시제가 주도시제인지, 그 시제의 사용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구어와 문어의 차이가 아니라는 것이다. 구어나, 문어나에 따라 각각의 주도시제를 현재형과 과거형으로 결정하여 소개하는 것보다는, 사용하고자 하는 텍스트의 유형이 어떤 유형인가에 따라서 그 주도시제를 선별하는 것이 더 분명한 판별 기준이 될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시제연구에 서는 사용 텍스트가 문어인지 구어인지의 구별에만 국한하지 말고, 이제는 사용 텍스트는 어떤 텍스트 유형인지, 그 텍스트 유형 속에서 주도시제는 무엇이며, 보조시제는 어떠한 기능들로 사용되고 있는지, 그의 사용 및 역할 연구가 행해져야 한다고 본다.

4. 결론

독일어의 전통 시제는 라틴어의 시제 체계를 모범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실제 시제의 사용에 있어서 시간내용과 시제형태가 일치하지 않은 경우가 자주 있다. 독일어 시제의 형태들은 라틴어의 시제형태와는 다른 동사활용을 하고 있으며, 또한 시제 사용을 분석해보면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내용보다는 오히려 과거와 비과거라는 이분적 대립을 하고 있다.

라틴어 범주로부터 벗어난 독일어 나름대로의 시제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먼저 형태론적인 측면에서 특징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독일어 시제체계는 형태적으로 단순시제와 확장시제로 이루어졌으며, 세 단계의 시간대립이 아닌 이분법적 대립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시제의 쓰임의 기능도 살펴보았다. 독일어 시제의 쓰임의 기능은 단지 시간특성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텍스트 내에서 사태의 완료 상을 표현하기도 하고, 기대와 추측 같은 양태를 나타내기도 하며, 발화를 강조하는 수단으로도 사용된다. 또한 시제는 특정 목적을 지니지

않고, 단지 텍스트를 구성해 주면서, 객관적으로 사태를 보고, 전달하는 의미전달의 수단으로만 사용되기도 한다. 이러한 다양한 시제의 기능은 의사소통-기능적 관점에 따라 텍스트 내에서의 시제의 기능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부각시킨다.

시제 연구는 문장을 넘어서 텍스트 내에서 이루어져야한다. 주도시제의 분석에 있어서도 구어와 문어의 구분보다는 어떤 텍스트 유형에서 시제가 사용되고 있는가의 구분이 근본적이다. 이때 텍스트 유형의 분류는 실용텍스트와 문학텍스트라는 단순한 유형 분류가 아니라, 시제의 기능을 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목적에 맞게 텍스트 유형을 분류하는데 관심을 가져야한다.

참고문헌

- Bartsch, W. (1980): *Tempus, Modus, Aspekt*. Die systembildenden Ausdrucks-kategorien beim deutschen Verbalkomplex. Diesterweg.
- Brinker, K. (1985): *Linguistische Textanalyse*. Einführung in Grundbegriffe und Methoden. Schmidt.
- Drewnowska-Vargáné E. (1999): Textlinguistik für Germanistikstudenten im nichtdeutschsprachigen Raum im besonderen Hinblick auf Textrezeption und Textproduktion. (In: *Deutsch als Fremdsprache* Heft 1. Leipzig.)
- Engel, U. (1988), *Deutsche Grammatik*. Heidelberg.
- Götze, L./ Hess-Lüttich, Ernest W.B. (1999): *Grammatik der deutschen Sprache*. Gütersloh.
- Götze, L. (1999a): Aspekte einer funktional-kommunikativen Grammatik für Deutsch als Fremdsprache. In: Katny, A./ Schatte, Ch.(Hg.): *Das Deutsche von innen und außen*. Festschrift für Ulrich Engel zum 70. Geburtstag. Poznán.
- _____ (1999b): Zeit und Tempus. Anmerkungen aus funktional-kommunikativer Sicht. (In: Freudenberg-Findeisen, R.(Hg.): *Ausdrucksgrammatik versus Inhaltsgrammatik*. Linguistische und didaktische Aspekte der Grammatik. München.)
- _____ (1999c): Eine funktionale Grammatik für Deutsch als Fremdsprache. (In: Skibitzki, B./ Wotjak, B.(Hg.): *Linguistik und*

- Deutsch als Fremdsprache*. Festschrift für Gerhard Helbig zum 70. Geburtstag. Tübingen.)
- _____ (2000): *Deutsche Grammatik (mit kommunikativen Übungen)*. Gütersloh.
- Heidolph, K. E./ Flämig, W./ Motsch, W. (1981): *Grundzüge einer deutschen Grammatik*. Berlin.
- Helbig, G./ Buscha, J. (1986): *Deutsche Grammatik*. Leipzig.
- Kroeger, H. (1977): *Zeitbewußtsein und Tempusgebrauch im Deutschen*. Frankfurt a. M.
- Latzel, S. (1977): *Die deutschen Tempora Perfekt und Präteritum*. München.
- Mann, T. (1922): *Tristan. Gesammelte Werke*. Novellen. Erster Band. Berlin.
- Mathilde H. (1998): Tempus. gesprochene und geschriebene Welt? (In: *Deutsch als Fremdsprache*. Heft 4. Leipzig.)
- Souissi, T. (1982): *Sind Tempora zeitlos!* Nach Tempus von Harald Weinlich. Frankfurt a.M.
- Vennemann, T. (1987): Tempora und Zeitrelation im Standarddeutschen. In: *Sprachwissenschaft* Band 12. Heidelberg.
- Weinrich, H. (1985⁴): *Tempus*. Besprochene und erzählte Welt. Stuttgart/ Berlin/ Köln/ Mainz.
- Weinrich, H. (1993): *Textgrammatik der deutschen Sprache*. Mannheim/ Leipzig/ Zürich/ Wien.

Zusammenfassung

Tempussystem und Tempusgebrauch im Deutschen

Park, Hyun-Sun(K.N.U.E.)

In der Grammatik für die Lernenden werden die deutschen Tempora nach dem lateinischen Vorbild dargestellt: Präsens, Präteritum, Perfekt, Plusquamperfekt, Futur I und Futur II. Und diese sechs Tempora werden in die drei Zeitstufen klassifiziert: Gegenwart, Vergangenheit und Zukunft. Aber die Zeitformen können nicht in direkter und geradliniger Weise auf bestimmte objektive Zeiten beziehen.

Das Verhältnis zwischen Zeitinhalt und Zeitform ist verwickelter und komplexer. Man denkt nach, wie viele Tempora es in der deutschen Sprache gibt und warum die Tempora Funktionen, die nicht nur Zeitinhalt, sondern auch andere Inhalte(z.B. modale) ausdrücken, haben. Um die Probleme zu erläutern, sollen wir die deutschen Tempora von der lateinischen Tempuskategorie abtrennen und ein geeignetes Tempussystem für die deutsche Sprache suchen. Dazu müssen wir beobachten, wie die deutschen Tempora konstruiert wurden.

Im Lateinischen handelt es sich bei allen sechs Tempora um Verbformen, um bestimmte (nämlich die indikativischen) Formen des finiten Verbs. Im Deutschen aber finden wir unter den Tempora nur zwei richtige Verbformen (Präsens und Präteritum), die übrigen Tempora sind verbale Komplexe, drei zweiwortige (Perfekt, Plusquamperfekt, Futur I) und ein dreiwortiger (Futur II).

Und das deutsche Tempussystem besteht aus den zwei Polen: Vergangenes und Nicht-Vergangenes oder Temporalität und Atemporalität. Die Tempusform Präteritum gehört zu Temporalität und die Tempusform Präsens zu Atemporalität.

Das Präsens und das Präteritum sind die Grundtempora im Deutschen und die übrigen Tempora sind die durch den Aspekt erweiterten und die zusammengesetzten Tempora. Sie haben deswegen die inneren Merkmale Aspekt und Modale außer Zeitbezug. Wir können diese inneren Merkmale im Tempusgebrauch feststellen. Als Funktionen der Tempora der deutschen Sprache im Tempusgebrauch sind zu registrieren:

Bezeichnung zeitlicher Gegebenheit, modale Implikationen, Aspektangaben und semantische Akzentuierungen. Und noch eins: Die Funktion des neutralen Referieren des Inhaltes durch das atemporale Präsens.

Das Präsens wird durch diese Referentfunktion zu dem Haupttempus auch in der geschriebenen Sprache. Trotzdem nennt man das Präteritum in der geschriebenen Sprache das Haupttempus. Ist das Präteritum dann in der Tat in der geschriebenen Sprache das Haupttempus?

Genau genommen ist das Präsens offenbar ein Haupttempus. Es wird nicht nur in der gesprochenen Sprache, sowohl auch in den geschriebenen nichtbelletristischen Texten hauptsächlich benutzt. Aber nur die belletristischen Texte werden durch das Präteritum beherrscht. Der Gebrauch des Präteritums als Haupttempus beschränkt sich nur auf die Belletristik.

Wir glauben, die Untersuchung über den Tempusgebrauch und die Tempusfunktion in den verschiedenen Textsorten sei besonders dem Nichtmuttersprachler wichtig, weil die Textsorten beim Tempusgebrauch eine Wahl des Tempus beeinflussen.

[검색어] 독일어 시제, 시제체계, 시제기능, 시제성
Die deutschen Tempora, Tempussystem, Tempusfunktion, Temporalität

박현선

137-030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 한신타운아파트 801호

hysunpark@yahoo.co.kr